

광주 온 조국 “총선 진보진영 승리 위해 전략적 선택 해달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민주당과 합당 없이 범민주 정당으로 연대만 순천 청년창업공간·충장로 방문 시민들 열렬 환호...강기정 시장 면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범민주 진보연합 정당으로서 연대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당 선언을 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지만 수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합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론 (민주당과) 범민주 진보진영 안에 들어있는 형제 당이라 같은 부분이 많다”면서도 “검사장 직선제, 기획재정부 개혁 등 조국혁신당 강령의 비전과 정책, 가치가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국회법상 안전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 의석인) 민주당 외 정치 세력의 자리가 최소 하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사례를 여러 번 말씀드린다. 21대 국회에 조국혁신당이 있었다면 민 의원이 탈당할 필요가 없었다. 민주당이 아닌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지역 비례대표 지지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오는 데 대해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동안 무능, 무도함, 무책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 깊이 분노하고 있다”며 “기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생 정당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광주·전남 범호남 지역에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유권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을 보시면서 마음 한 조각을 내어달라 부탁하고 싶다. 그 마음에 답하도록 힘

심의 힘을 다해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힘이 '5·18 왜곡 발언 논란'에도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공천한 도태우 변호사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밝혔다.

조 대표는 “도태우 후보의 사과문은 공천을 받기 위한 변명문에 불과하다. 광주시민들께,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상식 있는 국민들께 사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 후보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며 “특별법 제 8조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했다. 앞선 오전에는 순천시 청년창업공간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나고 기자회견 후에는 광주 충장로 우체국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났다. 총장로 우체국 일대에는 수많은 지지자가 모여 '조국'을 연호했고, 길을 가던 시민들도 조국 대표를 반기며 격려와 응원의 인사를 했다.

조 대표를 기다리던 김상기(58) 씨는 “검찰의 공세에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겨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응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시민들을 만나 “4월 10일 총선은 조국혁신당만 잡히는 선거여서 안 된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치역사의 고비 때마다 광주·전남은 지혜로운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지지자들과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송영길 '광주 서구갑' 옥증 출마 선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4일 옥증 편지를 통해 광주 서구갑 출마 선언을 했다.

송 대표는 자필 선언문을 통해 “검찰 독재와 흔들리지 않고 맞서겠다”며 “변절과 배반, 반역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국민과 함께 할 송영길의 손을 잡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송 대표는 이날 남영신씨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대표의 출마 선언문을 대신 낭독했다.

송 대표는 “서울의 봄 영화를 봤다. 12·12 쿠데타는 5·18 광주시민 학살의 전조였었다”며 “당

시 감옥에 갇혀있던 김대중 선생은 사형선고가 내려진 상태에도 군부 독재의 협박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 마침내 미국 망명을 마치고 귀국해 6월 항쟁을 이끌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대표였던 저 역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감옥에서도 되새기며 반성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지배 2년, 민주공화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검찰의 협박과 유혹, 캐비닛 보복 수사에 굴하지 않고 싸우는 강력한 야당과 정치인을 애대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017년 목발 경품 발언 사죄”

정봉주, 선거 운동·방송 중단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인 정봉주 전 의원은 14일 논란이 된 과거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여부를 두고 진위 논란이 일자 “팟캐스트에서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7년 7월 4일 팟캐스트 ‘정봉주 TV’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스키장 활용 방안에 대해 패널들과 대화하던 중 “DMZ(비무장지대)에 밧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밧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파주 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군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목발지뢰 폭발로 다리와 발목 등을 잃은 사건을 조롱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정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발언 후 목발지뢰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 발언을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해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김원진 상사와 하재현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 사과는 못했다”며 “7월 5일 같은 팟캐스트 방송에서 부적절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저는 불찰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며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 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낙연, 광주 광산을 본격 선거운동

4·10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14일 광주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선거구인 수완지구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와 대형 할인점 등을 돌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출마 지역구인 광주를 포함한 주요 출마 지역구를 겨냥해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과 만나 “가대 양당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말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2년 동안 국민 여러분이 진저리치시며 경험하셨을 것이다”면서 “도덕적, 법

적 흠결이 없는 세력으로써 새로운미래가 당당하게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는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민주세력의 재편과 재건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미래가 민주세력 재건의 씨앗이 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수완지구에서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여는 등 본격적인 ‘세물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 광산을 선거구는 ‘현역 교체’ 바람이 거센던 광주 8곳 선거구 중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수상’을 나서는 지역으로, 이 대표의 출마로 인해 오는 4·10 총선의 전국적인 격전지로 떠올랐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송갑석 “경선 패배 승복...민주 승리 돕겠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4일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교체 바람, 비명횡사, 하위 20% 핸디캡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고군분투했던 광주시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좋은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많은 이들이 투표율과 득표율 등 경선 결과를 쓰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깨끗이 승복하겠다”며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그는 “무등산 방공포대와 광주 군공항 이전, 서

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 구상 등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광주의 22대 국회의원들이 훌륭히 해낼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재건과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든 하겠다”며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많이 변화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경선 결과 송 의원은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게 패배하며 고배를 마셨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종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원룸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